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안인희¹, 이창환^{2*}

¹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²서강대학교 심리학과

The Effect of the Reading Discussion-oriented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Improvement

In hee Ahn¹ and Chang H. Lee^{2*}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토론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 5학년 세 학급을 실험집단, 비교집단 A, 비교집단 B로 각각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독서토론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5주간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같은 기간 비교집단 A는 진로인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비교집단 B는 교과학습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서토론 진로상담 프로그램 집단이 교과학습을 실시한 집단에 비해 진로발달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으나 진로인식 상담 집단에 비해서는 유의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독서토론 진로상담 프로그램 집단이 교과학습을 실시한 집단과 진로인식 상담 집단에 비해 성취동기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reading discussion-oriented career explor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career develop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ree fifth grade classes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comparative group A and comparative group B. Reading discussion-oriented exploration program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conducted for five weeks in ten sessions, the same period of time for comparative group A was given for conducting a career education program and subject studying was conducted on comparative group B.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applied to the reading discussion-oriented career exploration program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ir career development compared with the subject studying group. But they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with the career education group. Second, experimental group applied to the reading discussion-oriented career exploration programs showed significant increase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compared with the subject studying group and career education group.

Key Words : Reading Discussion-oriented career exploration program, Career development, Achievement Motivation

1. 서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며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복한

이 연구는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지도교수가 작성하였음.

본 연구는 2010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일부 지원에 의한 연구임 (201010049).

*교신저자 : 이창환(chleehoan@sogang.ac.kr)

접수일 10년 12월 06일

수정일 11년 03월 30일

게재확정일 11년 04월 07일

삶이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최상의 진로선택이야말로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바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발달과정 특성상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나 일과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진로의사결정 능력 등이 형성되어 진로발달의 싹이 트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교교육 현장을 돌아볼 때 진로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입시의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의 진로교육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도록 하여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준비, 개척해 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9]는 ‘모든 교육은 진로 교육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생활 전체를 통한 진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아동들이 자기주도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관심을 갖게 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사회적 적응력을 키워서 자신의 진로를 인식하도록 해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진로 발달 및 진로 탐색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나 방안으로 진로교육 지도안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 활동이 담임교사 중심의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지를 활용한 인지 중심적인 활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이 주도하는 활동보다는 교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프로그램은 아동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태도를 기르고 주어진 과업을 잘 해내고자 하는 내적 의욕인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이 주도하는 독서 토론 활동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책과 함께 하는 꿈 꾸기’라는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개개인은 자기 자신을 발견

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며 직업에 대해 의미있는 인식을 하게 되어 일의 세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계획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과 직업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진로발달 및 성취동기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 후 활동으로 토론과 토의를 활용한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운영이 초등학교의 진로발달과 성취동기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초등학교의 효율적인 진로 지도 자료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초등학교 진로교육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초등학교생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아동의 진로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초등학교생들의 발달단계로 보면 Freud의 잠복기, Erikson의 학동기,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단계들은 개인의 기초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이 단계에 어떤 생활 경험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학교 진로교육도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17].

아동의 경험이 성인행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적성, 흥미, 인성, 신체적 특징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와 직업에 맞게 능력과 적성을 가꾸어나가도록 지도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18]은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진로교육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로교육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진로교육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꾸준히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부터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인간발달의 측면에서도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은 필요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집 바깥세상을 경험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

는데 이러한 발달과정은 아동들에게 일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갖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은 공교육적, 개인적,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일에 대한 체험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라는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적응 능력을 학습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의미를 지닌다.

한편 [23]에 의하면 학생들은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의 단계를 진로발달이 시작됨과 동시에 세 가지가 함께 발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초보적이거나 자기의 성격, 흥미와 소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일의 세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 기회와 자극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진로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어 아주 가까운 것, 쉬운 것부터 점차 넓고 복잡한 것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진로 인식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자신의 소질 및 흥미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를 이해시키고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 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진로교육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2.2 진로발달

진로발달이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보람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며 새로운 직업기회와 개인목표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16].

[24]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어 가듯이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개인의 직업 선택 결정은 타협 과정을 통해 환상적 직업선택 단계(fantasy period 6-10세), 시험적 직업선택단계(tentative period 11-17세), 현실적 직업선택 단계(realistic period 18-22세)의 세 단계로 발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의

아동은 시험적 직업선택의 시기에 해당되면 이들은 자신의 흥미에 입각해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놀이가 점차 일 지향이 되면서 특정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데 이때 다양한 직업적 역할놀이는 직업 세계에 대한 최초의 가치판단을 반영하기도 한다.

[29]의 진로발달 단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5~6학년 시기는 흥미기(interest substage, 11-12세)에 해당되며 자신의 흥미를 더 잘 알게 되고 흥미는 포부의 강력한 결정인자가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욕구와 충동을 직업적 선호로 전환시킨다. 이 시기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으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진로교육은 중요한 시초가 될 수 있다.

[30]은 자아 인식, 진로 인식 및 진로의사결정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8가지 단계의 진로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의존성 단계(유치원~초등학교 1학년)의 진로발달은 외적 통제인 일에 대한 정보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중심으로 진로의식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자기주장단계(초등학교 1~2학년)의 아동은 점차로 자율성을 갖게 되며 친구의 선택과 같은 단순한 의미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일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조건적 의존성 단계(초등학교 2~3학년)의 아동은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보다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이 단계에서 자아인식의 초점은 동기, 욕구,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형성에 두고 있다. 독립성 단계(초등학교 4학년)의 아동은 일의 세계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 등을 생각해 보며 진로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외부지원 단계(초등학교 5~6학년)아동은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직업적 흥미와 목표, 직업조건, 직무 내용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30]은 진로 발달이론의 8단계 중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과 과업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발달 수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었으며 이 시기의 진로의식이 예상외로 성숙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이 아동의 진로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4]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자기의 탐색,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일과 사회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의 기초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7]은 초등학교 아동들은 3~4학년이 되면 이미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6학년이 되면 반 이상이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진로발달이 장래의 진로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2.3 성취동기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는 [27]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성취동기의 개념은 [25]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성취동기 이론을 받아들인 [22]등에 의해 그 이론 체계가 확립되어 성취동기라는 개념으로 더욱 발전되었다.

[27]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용인은 욕구와 압력,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 욕구이며 환경 내에 있는 심리적인 힘, 즉 환경 내에 내재하는 심리적인 힘과 개인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압력이다. 이 두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많은 동기들을 분류하면서 그 중 하나의 개념으로 성취욕구라는 특수한 동기를 포함시켰으며 장애를 극복하려 하며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어려운 일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잘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욕망 또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25]는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신의 탁월한 기준과의 경쟁, 독특한 업적, 장기목표에의 자아관여 등과 관련되어 감정을 유발시킬 때 이를 성취동기라고 하였으며 [22]은 성취동기를 성취로부터 자부심을 경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기대·가치 모형을 이용하여 성취동기 이론을 발전시켰다.

[1]는 ‘아동용 성취동기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성취동기를 어떤 훌륭한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해내려고 하는 노력으로 훌륭한 일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내어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생리적 특성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경험이나 학습으로 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으나 성취동기는 다른 심리적인 특성이 그러하듯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특성이다.

[25]에 의하면 성취동기는 후천적 경험과 학습에 의한 결과이므로 의도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육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취지향적인 성향과 행동특성을 갖고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6]은 훌륭한 성취에 대해 인정받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들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아동들은 남보다 탁월해지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성취동기란 어떤 훌륭하고 어려운 과업이나 과제를 달성하려는 개인의 지속적인 특성으로 비교수준에 대하여 잘 하려는 내적인 의욕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취동기는 개인의 행동변화를 위하여 의도적인 과정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심리특성이다.

2.4 독서토론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

독서 후 토론 활동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도우면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내 생각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도록 도전해 보기도 하고,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서로 도와주며, 다른 가정들을 찾아보게도 한다. 진로교육의 목표인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일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갖도록 하며 현명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음은 물론, 억지로 가르칠 수도 없다. 그것은 아동 자신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원해야 하며 스스로 찾아야 한다. 바로 독서 후 활동인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책을 읽고 그 느낌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책 속의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제로 겪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예방, 해결함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 가정, 사회생활에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도록 하는 독서치료의 효과는 그동안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자주 이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독서를 매체로 활용하여 진로성숙도의 향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진로단계 탐색 단계인 중학생의 독서습관과 진로성숙도[2], 독서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1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를 통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10] 등의 유의미한 연구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독서를 매체로 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의 연구는 진로 집단 상담에 독서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의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황나영의 연구는 책을 읽고 난 후, 책의 내용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활용이 되었을 뿐, 독서 후의 느낌이나 생각, 논의점 등이 집단원 간 상호 충분히 교환되어 이후 각자 내면화되는 과정에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인 독서 후의 효과를 다루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삼았으므로 기존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과의 비교연구는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사고력 등을 키울 수 있는 독서토론 활동을 진로상담에 활용해 보고 기존의 진로인식 집단프로그램과 그 처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흔히 토의(discussion)는 주제에 대한 서로의 지식·정보·의견·경험 등을 교환하여 결론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대화의 과정이며 토론(debate)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주장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화이며, 상대방과 제 3자를 설득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단, 본 연구에서는 토의와 토론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토론’이란 어휘를 토의를 포함한 집단원 간의 광범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서토론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체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초등학교용 양성평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영역별·역량별 교육지표를 따랐으며 모두 10차시로 재구성하였다. 각 차시별 주제는 [21]의 진로인식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참고로 구성하였고 토론 주제는 주제 도서에서 진로관련 부분을 추출하여 정하였으며 토론 시작 전 아동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회기의 시간은 50분이며 각 회기마다 도입단계에서 마음열기 및 생각해보기, 전개단계는 본격적인 토론과 토의 활동, 정리단계에서는 생각과 느낌 나누기로 진행하였다.

3. 연구 가설

책은 자기 방어를 가장 적게 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문자언어는 보다 덜 공격적이고 대담을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경험과 생각들을 이끌어 내며 이러한 접근은 아동들의 심리적인 문제와 발달해 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돕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진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할 때, 동일화와 카타르시스, 통찰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독서 활동, 그리고 그러한 독서의 차원을 보다 넓게 확장해 줄 수 있는 독서토론은 자아 이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자기 이해와 탐색을

바탕으로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의 기초과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독서와 진로발달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독서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영향을 미쳤고 [2,12,20], 고등학생에게도 독서를 통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0]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독서활동 자체나 독서를 매체로 한 진로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중·고등학생보다 두 배 이상 독서량이 많은[9]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독서토론 진로탐색집단은 진로상담집단과 교과집단에 비해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직업의 선택과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탐색하고 그러한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성취해 낼 것이라는 자신감 즉 성취동기는 의도적, 계획적인 훈련을 통하여 높게 육성될 수 있음이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8]은 진로집단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성취동기의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유사성이 많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성취동기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13]는 독서치료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를 통해 상황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다양한 독서 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3]는 독서치료가 학습부진아의 성취동기의 하위차원 중 과업지향성, 자신감, 책임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교과집단은 물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보다 성취동기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독서토론 진로탐색집단은 진로상담집단과 교과집단에 비해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K초등학교 5학년 학급 중 한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독서토론을 실시하는 실험집단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2개 학급을 각각 비교집단 A와 비교집단 B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통하여 학교에서 연구환경을 제공하였다.

4.2 측정도구

4.2.1 초등학생용 진로발달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14]이 개발한 초등학생용 진로발달 검사도구를 사용한다. 초등학생용 진로발달 검사도구는 자아인식척도, 학업·직업탐색 척도·진로계획 척도 3개 척도의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41개 문항의 검사도구이다. 이러한 척도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항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문항들

척도	하위영역	문항
자아인식	자아개념, 대인관계, 자기특성	1-10
학업, 직업탐색	학습과의 관계인식, 사회와의 관계인식, 진로정보 이해활용	11-23
진로계획	의사결정과정이해, 생애역할계획, 진로계획과정이해	24-41

[2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용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표준화된 Cronbach $\alpha=0.936$ 이고 하위척도별로 자아인식 척도는 0.787, 학업·직업탐색 척도는 0.844, 진로 계획 척도는 0.911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표준화된 Cronbach $\alpha=0.965$ 이고 하위척도별로 자아인식 척도는 0.882, 학업·직업탐색 척도는 0.906, 진로 계획 척도는 0.938이었다.

4.2.2 아동용 성취동기척도

본 연구에서는 [27]와 [25]의 성취동기 검사를 번안하여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성취동기 검사지를 기초로 [1]가 개발한 아동용 성취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과업지향성, 모험심, 독립심, 자신감, 책임감, 미래지향성의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척도들에 해당하는 특징과 구체적인 문항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이 검사의 문항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는 6개 하위요인별로 0.72~0.86이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성취동기 정제 영역에서 0.94이고, 과업지향성 척도는 0.94, 모험심 척도 0.77, 독립심 척도는 0.78, 자신감 척도는 0.83, 책임감 척도는 0.79, 미래지향성 척도는 0.77이다.

【표 2】 성취동기 검사도구의 문항들

척도	특징	문항
과업지향성	성취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경향	7,18,22,23, 27,34,36
모험심	새로운 일, 신기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	10,13,15, 19,28
독립심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특성	1,4,8,11,29
자신감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믿음	2,9,14,24, 30,32,35
책임감	행동에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행동 특성	5,16,20,25, 31,33
미래지향성	미래에 얻어질 성취만족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과업에 열중하는 태도	3,6,12,17, 21,26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표준화된 Cronbach $\alpha=0.966$ 이고 하위척도별로 과업지향성 척도는 0.898, 모험심 척도 0.805, 독립심 척도 0.891, 자신감 척도는 0.863, 책임감 척도는 0.86, 미래지향성 척도는 0.907이었다.

4.2.3 경험보고서와 관찰 기록

프로그램의 질적인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의 회기마다 포스트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낀 점, 깨달은 점 등을 자유롭게 써서 게시판에 붙이도록 하였다. 특별히 활동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주어진 시간에 상호 토론을 충분히 하고 둘째, 학생들이 활동지보다는 포스트일에 적는 것에 덜 부담을 느껴 보다 자유로운 느낌을 적을 수 있으며 셋째, 다른 친구들과

활동 후 생각을 교환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지막 회기를 마친 후에는 참가 소감문은 받았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활동과 반응을 관찰하여 매 회기를 마친 후 간단히 기록하였다.

4.2.4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평가지를 제작하였다. 만족도 평가지의 내용은, 전체 프로그램의 흥미도와 유익도, 프로그램 참여 희망도, 매 회기별 프로그램 만족도, 기억에 남는 회기와 독서매체를 알아보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3 연구방법

독서 후 토론 활동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청하고, 서로 도우면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내 생각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도록 도전해 보기도 하고,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서로 도와주며, 다른 가정들을 찾아보게도 한다. 진로교육의 목표인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일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갖도록 하며 현명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음은 물론, 억지로 가르칠 수도 없다. 그것은 아동 자신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원해야 하며 스스로 찾아야 한다. 바로 독서 후 활동인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책을 읽고 그 느낌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책 속의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제로 겪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예방, 해결함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 가정, 사회생활에 자연스레 잘 적응하도록 하는 독서치료의 효과는 그동안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자주 이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독서를 매체로 활용하여 진로성숙도의 향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진로단계 탐색 단계인 중학생의 독서습관과 진로성숙도[2], 독서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1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를 통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10]등의 유의미한 연구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독서를 매체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20]의 연구는 진로 집단 상담에 독서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의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황나영의 연구는 책을 읽고 난 후, 책의 내용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활용이 되었을 뿐, 독서 후의 느낌이나 생각, 논의점 등이 집단원 간 상호 충분히 교환되어 이후 각자 내면화되는 과정에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인 독서 후의 효과를 다루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삼았으므로 기존의 진로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연구는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사고력 등을 키울 수 있는 독서토론 활동을 진로상담에 활용해 보고 기존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과 그 처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흔히 토의(discussion)는 주제에 대한 서로의 지식·정보·의견·경험 등을 교환하여 결론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대화의 과정이며 토론(debate)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주장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화이며, 상대방과 제 3자를 설득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단, 본 연구에서는 토의와 토론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토론’이란 어휘를 토의를 포함한 집단원 간의 광범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인식 프로그램’ 또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의 용어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는 5주간 10차시로 진행된 단기프로그램이므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내용 체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초등학교생 양성평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영역별·역량별 교육지표를 따랐으며 모두 10차시로 재구성하였다. 각 차시별 주제 및 활동 내용은 [21]의 진로인식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각 차시에 독서토론 요소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토론 주제는 주제 도서에서 진로관련 부분을 추출하여 정하였으며 토론 시작 전 아동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회기의 시간은 50분이며 각 회기마다 도입단계에서 마음열기 및 생각해보기, 전개단계는 본격적인 토론과 토의 활동, 정리단계에서는 생각과 느낌 나누기로 진행하였다.

5.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독서토론 진로탐색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공변량분석(ANCOVA), Bonferroni t검증을 실시하였다.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그리고 교과학습에 참여한 아동의 진로발달 향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발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이하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실험집단,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비교집단 A, 교과학습을 실시한 집단은 비교집단 B로 명명한다.)

먼저 진로발달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집단별 사전, 사후, 교정된 진로발달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정사후검사
	M (SD)	M (SD)	M (SE)
실험집단 (N=28)	3.13 (0.65)	4.13 (0.66)	4.34 (.084)
비교집단 A (N=25)	3.79 (0.48)	4.24 (0.46)	4.04 (.088)
비교집단 B (N=27)	3.51 (0.63)	3.47 (0.53)	3.44 (.081)

처치집단별 사후 진로발달에 대한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발달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처치집단별 사후진로발달에 대한 공변량 분석 표

변량원	SS	df	MS	F
사전점수 (공변인)	1241.01	1	1241.01	7076.74**
집단	23.06	3	7.69	43.82**
오차	13.33	76	.176	
합계	1277.39	80		

**p<.01

실험집단, 비교집단 A, 비교집단 B 사이 진로발달의 사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 76)=43.817, MSe=0.175, p=.01) 집단 간 평균치의 차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A가 비교집단 B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세 집단 간 진로 발달의 하위요인의 평균치별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진로발달 하위 차원의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간 Bonferroni t검증

영역	MD (실험-비교A)	MD (실험-비교B)	MD (비교A-비교B)
진로발달전제	.31	.90*	.59*
자아개념 인식	-.04	.54*	.57*
대인관계 인식	.20	.64*	.44*
자기특성 이해	.32	.58*	.25
진로와 자산· 사회관계 인식	.06	1.11*	1.01*
일과 자산· 사회관계 인식	.23	.45*	.21
진로정보 이해·활용	.32	1.23*	.91*
의사결정 과정이해	.11	.61*	.51
생애역할 계획	.36	.76*	.41
진로계획 과정이해	.19	.97*	.79*

*p<.05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발달 전체의 경우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B간 평균 차이(MD=.901, MSe=.117, p=.001)와, 비교집단 A와 비교집단 B간 평균 차이(MD=.593, MSe=.118, p=.001)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A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성을 보였다(MD=.308, MSe=.127, p=0.052).

또한 자아개념 영역에서는 비교집단 A의 진로발달 향상 효과가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발달 하위차원에서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모든 하위차원에서 비교집단 B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발달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반면에 비교집단 A는 진로발달의 하위차원 중 자기특성 이해와 사회관계인식, 의사결정 과정이해, 생애역할 계획 영역에서 비교집단 B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A사이의 진로발달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교집단 B와의 평균 차 비교 결과를 통해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발달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서토론 진로탐색집단은 진로상담집단과 교과집단에 비해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부분 지지되었다.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그리고 교과 학습에 참여한 아동의 성취동기 향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취동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였다.

먼저 성취동기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집단별 사전, 사후, 교정된 성취동기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정사후검사
	M (SD)	M (SD)	M (SE)
실험집단 (N=28)	2.58 (0.58)	3.29 (0.60)	3.43 (0.68)
비교집단 A (N=25)	2.98 (0.46)	3.27 (0.49)	3.15 (0.72)
비교집단 B (N=27)	2.84 (0.56)	2.78 (0.44)	2.73 (0.67)

처치집단별 사후 성취동기에 대한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취동기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변량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처치집단별 사후성취동기에 대한 공변량 분석표

변량원	SS	df	MS	F
사전점수 (공변인)	767.23	1	767.23	6460.54**
집단	12.30	3	4.10	34.52**
오차	8.56	72	.02	
합계	788.09	80		

**p<.01

실험집단, 비교집단 A, 비교집단 B 사이 성취동기의 사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 72)=34.52, MSe=0.02 p=.01) 집단 간 평균치의 차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A가 비교집단 B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세 집단 간 진로발달의 하위 요인의 평균치별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성취동기 하위 차원의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간 Bonferroni t검증

영역	MD (실험-비교A)	MD (실험-비교B)	MD (비교A-비교B)
성취동기전체	.29*	.70*	.42*
과업지향성	.34	.77*	.43*
모험심	.23	.66*	.44*
독립심	.37*	.78*	.39*
자신감	.30*	.71*	.40*
책임감	.13	.74*	.60
미래지향성	.32	1.23*	.91*

*p<.05

사후검증 결과, 성취동기 전체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A간 평균차이(MD=.286, MSe=.101 p=.018)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B(MD=.701, MSe=.096, p=.000)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취동기의 하위영역에서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비교집단 B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 A와의 성취동기의 하위영역에 대한 사후검증 비교에서 독립심(MD=.365, MSe=.134 p=.024)과 자신감(MD=.304, MSe=.107 p=.017)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 및 교과 학습을 실시한 집단보다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독서토론 진로탐색집단은 진로상담집단과 교과집단에 비해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6. 논의

본 연구는 책 읽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독서활동, 그리고 그러한 독서의 차원을 보다 넓게 확장해 줄 수 있는 독서토론이 자기를 이해하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진로발달 및 성취동기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초등학교의 효율적인 진로 지도 자료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

중요한 연구결과로 첫째,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과 학습을 실시한 집단은 물론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보다 그 향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 보았다. 교과학습을 실시한 집단의 진로발달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09점 낮아진 것에 비하여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진로발달 사후 점수는 평균 1.21점이 증가하였으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에서 세 집단 사이의 진로발달의 사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을 통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는 자세로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결정으로 얻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진로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6,11,20,21].

그러나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의 진로발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진로발달의 하위 영역 중 자아 개념 영역에서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조금의 차이이긴 하나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독서토론 활동을 통한 자기 이해와 탐색을 바탕으로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의 기초과정을 준비하게 되어 진로발달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2,12,20].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독서활동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통계집단이 진로 상담집단이 아닌 진로상담에 노출되지 않은 통계집단과의 비교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토론을 비롯한 독서활동을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때 활동이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인식에 관한 하위차원으로 자기 개념 인식에 관한 영역에서 진로상담집단이 독서토론 진로탐색집단보다 향상된 효과를 보인 것은, 일반적인 진로 상담이 진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더 포괄적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측면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과 학습을 실시한 집단은 물론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보다 그 향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

해 보았다. 교과학습을 실시한 집단의 성취동기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11점 낮아진 것에 비하여 독서토론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사후 성취동기 점수는 평균 .85점이 증가하였으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에서 세 집단 사이의 성취동기의 사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교과수업을 실시한 집단과의 비교에서 모든 성취동기 하위차원에서 성취동기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에 비해 일반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독립심과 자신감 영역에서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내 생각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도록 도전해 보기도 하고,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서로 도와주며, 다른 가정들을 찾아보게 하여 현명한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독서 후 토론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독립심과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일반적인 진로상담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집단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며[8], 다양한 활동을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 활용했을 때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도와 성취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15]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된 본 프로그램이 그동안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졌던 진로교육의 영역을 좀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 현장은 물론 중·고등 교육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토론을 비롯한 독서 후 활동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결 후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참가한 학생 모두 본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였고 다음 기회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다시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가장 인상깊었던 회기와 도움이 된 독서매체의 설문, 그리고 최종소감문 등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이 독서 토론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높았고, 참가 전보다 다양한 사고를 기를 수 있었다는 응답을 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이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직업세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올바른 진로 의사 결정능력을 고취시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 준비할 수 있는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업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취동기를 향상시켜 진로교육의 중요한 첫 시기인 초등학교 현장에서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비롯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진로교육에 있어서는 진로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활화와 내면화가 가능해지도록 다양한 활동 위주의 진로상담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시대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독서토론이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진로교육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뚜렷이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기현주, “아동용 성취동기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2004.
- [2] 김명숙, “중학생의 독서습관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8.
- [3] 김유희, “독서치료가 학습부진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2008.
- [4] 김충기, “교육심리학”, 동문사, 2000.
- [5] 김혜령, “진로탐색집단상담이 중학생의 학습동기 유발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6] 김희경, “직업탐색중심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진로발달 및 성취동기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2008.
- [7] 나승일, “직업기초능력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연계 실태분석”, 직업교육연구18(1), 1999.
- [8] 류해옥,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성취동기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05.
- [9]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 [10] 배은경, “독서를 통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3.
- [11] 원덕자, “진로인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0.
- [12] 이상애,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독서치료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6.
- [13] 이정미, “독서치료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4.
- [14] 이종범, “초등학교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5.
- [15] 임은영, “활동중심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성숙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08.
- [16] 정철영, “직업기초능력 강화 방안”, 교육부, 1999.
- [17] 조보환, “직업탐색중심 초등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 아동 교육연구 제 15권 제2호, 5~20, 2000.
- [18] 최동선, 정철영, 서우석, 허종렬, 윤형현,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19] 한국교육개발원,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9.
- [20] 황나영, “진로탐색중심 독서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2008.
- [21] 황옥선, “진로인식 집단상담이 초등학교의 진로성숙도와 학습흥미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8.
- [22] Atkinson, J.W. & Brich, D., “Introduction to motivation”, New York: Von Nostrand Co, 1966.
- [23] Brolin, D. E., “Career education: a functional life skills approach(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95.
- [24] Ginzberg, E.,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1972.
- [25] McClelland, D.C., “Achievement Motivation can be developed”,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1965.
- [26] Morris, J. c.,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1996.
- [27] Murry, H. A.,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 [28] Sidney Marland P., “Career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 [29] Super, D. E.,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Person,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 2-9, 1957.
- [30] Tuckman, “An age 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1974.

안 인 희(Inhee Ahn)

[정회원]



- 2010년 8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 1999년 3월 ~ 현재 : 서울경기 초등학교 근무

<관심분야>
상담심리

이 창 환(Chang Hwan Lee)

[정회원]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1999년 8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심리학과(철학 박사)
- 2007년 9월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과학